

토론을 활용한 참여적 시민교육의 사례 비교: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오리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참여적 시민교육의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청소년 시민성 함양 교육의 설계 원리와 적용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현대 민주사회는 대의제의 한계와 정치 양극화, 청소년의 형식적 참여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OECD와 UNESCO는 청소년을 민주사회의 동등한 참여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성과 참여적 시민교육, 숙의민주주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미국(NHSEB), 노르웨이(WEXFO/Take Action), 덴마크(Skolevalg), 포르투갈(SPB)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론은 청소년이 공적 쟁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적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참여적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권한의 실질성’, ‘경험의 진정성’, ‘학습의 연계성’, ‘참여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참여를 시민성 함양으로 연계하는 교육적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청소년 시민교육이 토론 기반의 참여적 설계를 제도화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며 교과와 비교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토론교육, 청소년 참여, 시민성 함양, 숙의민주주의, 참여적 시민교육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greendao@daum.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협력, 문제 해결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OECD, 2023). 특히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OECD, 2022). 이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 청소년과 관련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청소년 집단과 열린 소통을 촉진하는 참여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토론을 활용한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구정화, 2020). 토론은 의사 표현을 위한 기능적 훈련을 넘어, 협력과 공감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성찰을 통해 정보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과 공적 참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숙의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질은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숙의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담보된다(Elstub & McLaverty, 2014).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숙의 경험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유럽 연합(EU)은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박선영, 2022). OECD 회원국 다수가 학생들이 교과 수업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의 의회, 참여 예산제 등 다학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천적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실 학습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질적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민교육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어, 사회,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토론과 숙의를 통한 시민적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교실 밖으로는 청소년 의회, 참여 예산제, 학생 자치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 참여의 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의 과정에서 청소년 위원회나 학생 자치회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의사결정의 권한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에게 참여의 경험을 보다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 방식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OECD의 세계시민역량(Global Competence)과 UNESCO의 세계시민교육(GCED)은 시민성을 인지, 사회·정서, 행동이 결합된 다차원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비판적 사고, 관점의 수용, 공감, 협력, 책임 있는 참여 등을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는 시민성을 고정된 자질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역량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비추어 시민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정의하거나 교과 교육적 접근 방식을 논의하기보다는 실제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의 국제적 운영 동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토론과 숙의를 활용하는 참여적 시민교육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이 공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타인과 조율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하는 경험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해외 사례를 이상화하거나 모범 사례로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숙의에 기반한 참여 경험이 시민성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시민교육이 직면한 한계를 성찰하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실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상호작용, 지역사회 맥락, 학교 문화,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미시적 맥락과 현장 경험의 층위를 포착하기에 문헌과 공식 자료에 근거한 분석은 한계가 있고,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도 어렵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일정한 분석 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시민성과 교육적 기제를 표준화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사례가 지닌 고유한 맥락과 복합성이 단순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공통의 교육적 기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토론과 숙의에 기반한 시민교육 연구는 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한 규범적 논의나 교과 수업 차원의 교수·학습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론을 활용한 참여적 시민교육의 해외 사례를 시민성의 다차원적 구성과 교육적 기제라는 분석 틀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시민교육이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장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개념

‘시민’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초하여 근대사회를 이룬 민주주의 혁명의 담당자인 서민 계급의 의미로 쓰인다(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1975).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자유와 평등의 지향점을 갖춘 국민을 의미한다. 전통적 ‘인민(demos)’과 구별되는 시민 개념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성된 시민권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이은미, 진성미, 2014).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로서의 시민성(civic competence)은 시민 지위나 시민권(citizenship)처럼 주어진다기보다 교육과 참여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시민교육에서 시민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특히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 요소는 참여이고, 시민교육은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좋은 시민(good citizen)’은 사회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지니고,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며 정치·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로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Parker & Jarolimek, 1984)이다. Parker(1996)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통

적 교육의 관점을 진보적 관점과 비교하면서 다원주의적이고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발전된 시민성(advanced citizenship)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 시민성(traditional citizenship) 교육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정치 제도와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학습한다. 이에 비해 진보적 시민성(progressive citizenship) 교육은 지식이나 원리를 간과하지는 않지만, 주권자로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는 실질적 참여로 확장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함께 고려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포함된다(Parker, 1996).

시민교육의 목표로 제시되는 이상적(ideal) 시민은 단일한 유형으로 환원될 수 없다(신호재, 2022). 이상적 시민은 고정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닌 발전 가능성을 지닌 진행 상태이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자각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사회의 맥락에 맞게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시민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시민의 역량은 다양한 형식과 수준의 콘텐츠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 공적·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 인류 공동체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제적 자질, 도덕성과 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시민성은 분절적으로 발달하는 고정된 도달점이라기보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달하는 역량의 개

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치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화는 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 학교 밖 비공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Parker, 2001; Langton & Jennings, 1968). 개인의 초기 정치적 정향과 태도는 가정에서 형성되지만 이후에는 학교와 같은 이차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 강화되거나 재사회화된다. 학교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지식과 태도를 다루기도 하고, 학교 환경과 일상적 경험 등 비의도적 경로를 통해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훈석(2013)은 학교 현장에서의 시민교육이 오랫동안 정치 참여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관념으로는 민주주의를 알지만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시민을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추정훈(2002)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탐구,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실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Bauml et al.(2023)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기 참여 경험을 통한 시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적 목적의식(civic purpose)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즉 학생의 삶 속에서 시민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시민교육은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참여를 자극할 수 있도록 특정한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제시될 때 효과적이다(신호재, 2019).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토론과 협상 등 의사결정의 과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가 형성된다. 교과 교육과정 중심의 시민

교육이 지니는 한계는 학교 내 비교과 교육과정 및 학교 밖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공식적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공적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지식과 가치, 신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습은 독립된 인지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험과 맥락, 문화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참여 성향은 과업 수행의 경험을 통해 강화된다.

공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동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동기는 반복적인 참여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의해 유발된다. 토론이나 사회 활동을 통한 의견 존중과 의사결정에의 반영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의미와 효과를 체감하게 함으로써 이후 시민적 참여를 확장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참여 교육은 토론, 토의, 실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므로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 성향에 비교적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획일적인 교수·학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언어적 표현에 능숙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나 실천 활동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시민성을 함양을 촉진한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경험은 공적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실제 상황 속에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적용해 보는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청소년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 참여적 시민교육의 방법으로써 토론

토론과 숙의 기반 참여적 시민교육(action civics) 관련 연구의 흐름은 크게 숙의민주주의 관점의 규범적·이론적 논의와 쟁점 토론 중심의 교과 수업 연구, 토론을 의사결정 참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에서 시민교육은 경쟁적 의견 제시보다 근거에 의한 정당화, 공공선에 대한 숙고를 통해 민주적 시민성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Hanson & Howe, 2011). 여기서 토론은 말하기 기술이나 논리 훈련에 그치지 않고, 공적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공적 판단을 하는 학습 장치로 기능한다(Crocco, 2018).

교과 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쟁점 토론과 열린 교실 풍토(open classroom climate)가 정치적 효능감, 참여 의향, 시민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하였다. 토론은 단순한 찬반 대립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주장의 구성과 상호 질문 및 반론 검토와 합의의 절차를 거칠 때 효과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OECD, 2021).

최근 참여적 시민교육의 흐름에서는 토론을 실천(action)과 제도 참여로 연결하려는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른바 참여적 시민교육 연구는 청소년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시민적 자기효능감과 역량 축적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Ballard, 2016).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여의 진정성과 권한의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형식적 수준에 머물거나 특정 집단의 참여로만 편중될 위험이 있어 프로그램의 제도

적 설계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토론과 숙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과 쟁점 관련 수업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민주 시민성을 재정의하거나(추정훈, 2002), 공론화 절차를 수업 설계에 적용하여 숙의민주주의적 시민성을 지향하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구정화, 2020), 사회 참여 체험 학습을 시민성 함양의 과정으로 분석하는 등(고훈석, 2013)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공론장 기반 수업 설계, 숙의 과정에서의 학습자 역할, 토론의 교육적 한계를 다루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박선운, 황미영, 2024; 성경희, 박하나, 유혜영, 2024).

참여적 시민교육에서 토론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참여적 시민교육은 전통적인 시민교육이 제도와 권리에 관한 지식 전달에 치중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학생들이 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의견을 형성하며 나아가 실제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Hess & McAvoy,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은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토론은 단순한 언어 표현 훈련이나 논리적 설득의 기술을 넘어 공공선과 공동체적 책임을 지향하는 시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적 장치로 활용된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은 토론과 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숙의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취합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거

쳐 집합적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한다(Elstub & McLaverty, 2014). 이는 투표 중심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토의와 대화의 과정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자,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을 마련한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상충하는 가치와 이해 관계가 공존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토론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 공감과 관용, 합리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토론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장이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게 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5년부터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또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등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토론이 어떤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그 역량을 비교과 활동을 통한 제도적 참여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적 기제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의 실행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토론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과에서 토론은 독서 및 글쓰기 활동과 연계되어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성취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로 유지되었다. 고등학교 화법 과목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학습하도록 하고, 독서 과목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토론을 활용한다(교육부, 2022a). 국어과에서의 토론은 텍스트 이해와 근거 구성, 표현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공적 의사소통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읽기·쓰기 활동과 결합한 사고 형성의 과정이다. 이는 토론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이해와 근거를 공적 발화로 전환시키는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과에서는 토의나 토론을 통해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9사(일사)03-03]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탐구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주장 및 근거 제시, 타당성 평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역할을 실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한다(교육부, 2022b). 사회과의 토론은 사회적 쟁점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대안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합의나 정당한 불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공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논리를 경험하도록 한다.

도덕과에서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토론한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9도02-05]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폭력의 유형과 원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의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른다.”로 이어지고 있다(교육부, 2022c). 도덕과의 토론은 가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성찰하고, 공동체적 책임과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토론은 도덕적 추론을 ‘정답 찾기’가 아니라 근거와 성찰을 동반한 ‘판단 과정’으로 경험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토론은 국어과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과에서는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을 통한 민주적 참여 역량을, 도덕과에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태도를 기르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교과별 활용 양상은 다르지만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은 언어적 표현과 합리적 소통,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참여, 윤리적 성찰과 가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참여적 시민성 함양과 직결되는 토론은 학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민주적 참여 방식을 습득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인식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Ⅲ. 청소년 대상 참여적 시민교육의 해외 사례

앞 장에서는 토론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수행하는 학습 기능과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해외에서도 토론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된다. 숙의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적 의사결정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논거를 바탕으로 한 토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당성이 확보된다(Elstub & McLaverty, 2014).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한 교과 수업에서의 토론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적 시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토론은 교실 수업에서의 토론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장 참여, 제안과 협의, 협의의 도출의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례 분석은 토론 수업의 형식적 유사성보다 각 프로그램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경험의 구조화 양상과 시민성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구성되는 맥락을 중심으로 한다.

1. 분석의 기준

본 연구에서 청소년 시민교육 사례 분석의 준거로 삼고자 하는 신희재(2022)의 이상적 시민상은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통제해야 할 미성숙한 대상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한다. 시민을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특정 규범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도록 하기보다 공적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선택하며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지향하는 참여적 시민교육의 방향과 부합한다. 또한 시민성을 고정된 도달점이나 단일한 이상형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호 연관된 다차원적 역량으로 이해하여 청소년 시민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토론하며 실제 참여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과 숙의에 기반한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며 공적 판단을 연습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실천 역량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신호재의 시민상은 참여의 경험을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윤리적 성찰, 문화적 감수성, 국제적 연대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호재(2022)의 이상적 시민상을 분석의 준거로 삼아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의 해외 사례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주체로서의 위치와 시민으로서의 실천을 추동하는 힘을 형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호중첩의 가능성을 전제로 각국의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시민성의 지향과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다섯 가지의 시민성은 다음과 같다.

1) 문해력 기반 시민성: 사회적 담론을 읽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 의사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다.

2) 실천적 시민성: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가치를 실제 제도적 참여나 공동체 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히 아는 시민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민상을 반영한다.

3) 문화적 시민성: 타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감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는 문화적 경험과 예술적 활동을 통해 증진되며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다.

4) 국제적 시민성: 기후 위기, 인권, 평화와 같은 전지구적 과제에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연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책임 의식과 연대 실천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5) 도덕적 시민성: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과 도덕적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숙의와 대화를 통해 공공선을 구현하는 시민성을 지향한다.

다섯 가지의 시민성은 사례 분석을 위해 편의상 분절적으로 기술했을 뿐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서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분석의 대상은 전국 또는 광역 단위에서 제도화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이 공적 쟁점을 두고 토론 또는 숙의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영 매뉴얼, 절차, 가이드, 법령 등 공식 문서로 접근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는 단순히 자료 접근성이나 프로그램의 인지도에 근거하

기보다는 참여적 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맥락에서 토론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표 사례는 미국의 전국 고등학교 윤리 토론대회(NHSEB), 노르웨이의 WEXFO Youth Voices 및 Take Action, 덴마크의 학교 모의선거(Skolevalg), 포르투갈의 학생참여예산 제도(SPB)이다. 네 국가의 사례는 정치적 상황과 교육적 제도 및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청소년이 공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숙의하며 그 결과가 제도적 절차나 공적 공간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참여적 시민교육의 구현 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개국의 사례에서 토론을 참여의 경험으로 조직하는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면 NHSEB는 윤리적 딜레마 토론을 통해 공적 판단과 규범적 시민성을 훈련하는 경연형 모델이고, WEXFO는 국제 포럼을 기반으로 의제화·발화·제언을 강화하는 공론장형 모델이다. Skolevalg는 모의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체험화하는 제도 학습형 모델이고, 포르투갈 SPB는 예산 배분이라는 실질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하여 결정·집행·환류를 연결하는 권한 위임형 모델에 가깝다. 이같은 비교는 토론이 어떤 조건에서 시민적 자기효능감과 실천 역량을 촉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분석은 각국의 공식 웹사이트, 규정집, 교사용 가이드, 법령 등 1차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서술적 비교에 기초하되 ‘권한의 실질성’, ‘경험의 진정성’, ‘학습의 연계성’, ‘참여의 지속성’의 교육적 기제를 기준으로 삼았다. 네 가지 교육적 기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 틀로 기능한다. 참여 경험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제 의사결정이나 자원 배분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권한의 실질성’이 활용되고, 참여가 일회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험의 진정성’과 ‘참여의 지속성’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 사례에서 장점뿐 아니라 제도적·운영상의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2. 분석의 대상¹⁾

1) 미국: 전국 고등학교 윤리 토론 대회(NHSEB)

미국의 전국 고등학교 윤리 토론 대회(National High School Ethics Bowl, 이하 NHSEB)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파르 윤리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참여적 토론 프로그램이다(NHSE, 2025).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도덕적·윤리적 쟁점을 탐구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추어 의견을 교환하도록 설계되었다. 대회의 핵심은 논리적 우위 확보나 승패 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경청하고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확보된다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을 반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매년 배포되는 사례집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 윤리, 환경문제 등 동시대의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은 한 팀이 사례를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하면 상대 팀은 논평하고

1) 이 장의 사례는 연구자가 작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5)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질문하며 다시 발표팀이 이를 반영해 입장을 수정하거나 심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또한 중요한 토론의 단계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논거를 재검토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여 입장을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력적 태도로 대응하는 훈련을 받는 이 토론대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실제 사회적 의사결정의 논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비판적·분석적 사고력, 공감 능력, 도덕적 성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승부보다 숙의를 중시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태도를 학습한다.



[그림 1] 2024-2025 NHSEB 연간 일정

윤리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NHSEB는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 제시한 시민성 중 도덕적 시민성과 문해력 기반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성 함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대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참여 학생의 범위가 제한되고, 제도적 의

사결정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속의 과정의 경험에 초점을 둔 사례라 할 수 있다.

2) 노르웨이: WEXFO Youth Voices 및 Take Action

노르웨이의 WEXFO Youth Voices는 세계표현포럼(World Expression Forum)의 청소년 세션으로, 14~18세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불평등과 같은 공적 쟁점을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탐구하고 토론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WEXFO, 2025). 청소년들은 작가, 예술가, 정책가와 함께 패널 토론, 워크숍,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체득한다. 이 프로그램의 독창성은 정치적·윤리적 쟁점을 언어적 토론에 국한하지 않고, 문학·음악·예술적 퍼포먼스와 같은 문화적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5년 ‘저항의 해(The Year of Resistance)’를 주제로 한 Youth Voices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공연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발표, 포퓰리즘·허위 정보·선거와 미디어의 관계 등을 다루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분과별 워크숍에서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청소년과 함께 문학·음악·시각예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의 증진 방안,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비판적 리터러시 툴킷 제작, 디지털 시민의 정보 판별 능력 강화 전략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말미에는 예술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토론에서 다룬 주제를 문화적 표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WEXFO, 2025).

특히 2025년 신설된 Take Action 컨퍼런스에서는 청소년들이 민주

<표 1> 2025 Youth Voices(6월 2일) 주요 프로그램 구성(발체)

예술적 퍼포먼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공연이 컨퍼런스 홀 무대에서 열림			
저항의 해 9:30~10:55	사회 및 진행	1 신문 발행인, 출판업자, 정치학자	
		2 보안 분석가	
		3 TV뉴스 기자	
		4 릴레함메르 시장	
	기조 연설	시리아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희망	
연구 발표	세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신 데이터 및 분석		
패널 토론	세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현황		
표현의 자유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상하는 독재 정치 11:15~12:45	기조 연설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의 방향	
	기조 연설	정체성의 뒷 - 정치적 양극단의 비자유주의 비판	
	패널 토론	포퓰리즘, 허위정보, 민주주의의 관계	
	기조 연설	2024/2025년 선거와 관련된 선전 및 허위 정보 문제	
	패널 토론	글로벌 선거 결과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점심			
분과 세션 및 워크숍: 표현의 자유 열쇠 14:00~16:30	민주주의를 구하는 기술	전통 미디어가 선거에서 졌는가?	프로젝트 발표: DEM READ!
	- 작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식의 세션	- 허위 정보(가짜 뉴스)의 개념과 위험성을 탐구	- “Democracies Depend on Reading” 프로젝트 발표
	- 문학, 음악, 시각예술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탐색	-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한 비판적 리터러시 툴킷(toolkit)을 함께 만들어보는 토론 중심 세션	- 깊이 있는 독서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역량을 강조
	- 예술을 사회 변화의 촉매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고민	- 디지털 시대의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판별 능력과 민주적 책임	-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기초로서 독서의 의미 재조명
	예술 공연 및 전시회 개막 17:00~18:00	정원에서의 예술 공연	
시상식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주의와 인권, 허위 정보 대응 등 세계적 의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안하고, 국제 청소년 단체와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중 Democracies Depend on Reading (DEM READ!) 프로젝트에서는 깊이 있는 독서를 민주주의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비판적 사고와 정보 판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문해력 기반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독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WEXFO Youth Voices와 Take Action은 문화적 표현과 숙의적 토론을 결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위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단기적 참여 경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문화적 시민성, 국제적 시민성, 문해력 기반 시민성의 함양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덴마크: 학교 모의 선거(Skolevalg)

덴마크의 Skolevalg는 교육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Folketinget, 2025). 주 대상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전국의 8~10학년 학생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는 시기에 해당된다. Skolevalg는 선거 제도를 교실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 활동, 선거 운

동, 토론, 투표, 개표에 이르는 선거 절차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생들은 덴마크 의회에 등록된 실제 정당의 청년 조직과 연계하여 각 정당의 기본 정책과 가치를 학습한 후, 학교별로 모의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 자신이 속할 가상의 정당을 선택하거나 창당하여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연설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정치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olevalg에서 토론은 교실 내 소규모 토론뿐 아니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 실제 정치인 및 청년 정당 대표와의 대화 세션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쟁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일에는 전국 단위의 모의 투표와 모든 학교의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공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한다.

토론과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정치적 판단력을 기르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조율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협력의 의미를 내면화하게 된다.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 Skolevalg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원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political self-efficacy)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실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경험이 성인이 된 후 선거 참여율과 정치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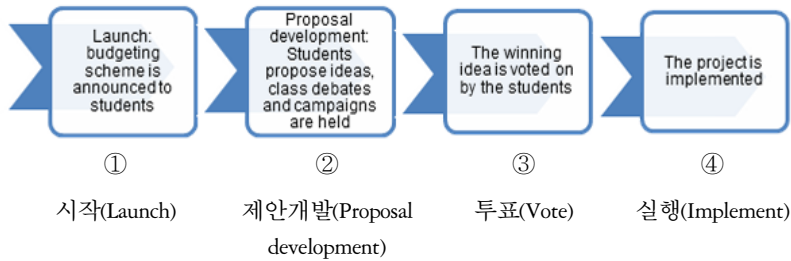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kolevalg는 교과서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닌 제도적으로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경험하는 장치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의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시민성 함양의 사례를 보여준다. 모의 선거라는 형식은 실제 정책 결정으로의 연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Skolevalg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학습을 실천의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살아 있는 제도로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민교육의 모델이 된다.

4) 포르투갈: 학교 참여 예산제(SPB)

포르투갈의 학교 참여 예산제(Schools Participatory Budget, 이하 SPB)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청소년 대상 참여 예산 제도로, 2017년부터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었다(Diário da República, 2017; DGE, 2025). SPB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한다. SPB는 청소년을 보호나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전통적 관점을 넘어, 청소년을 책임 있는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고 실천의 기회를 보장한 획기적 제도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 학교 운영과 관련된 필요나 문제점을 식별하여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제안 내용은 학교 시설 개선, 환경 보호, 학습 자원 확충,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하다. 공개 토



[그림 2] SPB 운영 절차

론회를 거쳐 제안된 프로젝트들은 후보로 선정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산의 한계와 학교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전교생이 최종 프로젝트를 투표로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은 실제 학교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는데, 학생들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사후 평가에 참여한다. 전 과정은 교사와 행정가가 감독하지만,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생이다.

SPB는 학생들이 제한된 공공 예산을 배분하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작동 원리를 학습하도록 한다.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한된 자원을 두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경험은 실천적 시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동료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채택되고 실행되는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체적 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며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SPB는 학생들에게 시민적 자기효능감(civic self-efficacy)과 공공 문제 해결에 대한 주인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가진 포용성은 시민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합의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실행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공적 자원 배분이라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성을 학습하도록 하는 SPB는 민주주의를 제도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시민교육이 모의 활동이나 이론적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분석의 결과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의 참여적 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제도적·문화적 맥락에서 다차원적으로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미국의 NHSEB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시민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르웨이의 WEXFO Youth Voices 및 Take Action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적 매개를 활용한 토론을 통해 문화적 시민성과 함께 국제적, 문해력 기반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덴마크의 Skolevalg는 실제와 동일한 제도 절차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실천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포르투갈의 SPB는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들에게 부여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통해 실천적 시민성과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례는 토론을 매개로 한 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제도와 문

화적 맥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설계 원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 사례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쟁점 선정, 토론과 숙의, 결정, 실행, 환류’의 단계로 재구성하고, 단계별로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권한, 참여 방식, 학습(교과비교과)과의 연계 구조, 반복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프로그램 개요

구분	미국 NHSEB	노르웨이 WEXFO	덴마크 Skolevalg	포르투갈 SPB
유형	윤리적 딜레마 중심의 숙의·토론 경연형	국제 포럼·워크숍 기반 공론장·참여 촉진형	모의 선거 기반 민주주의 철차 체험형	청소년 참여 예산 기반 권한 위임·집행 연계형
운영 주체	대회 운영기관(학교·네트워크 연계)	재단·포럼 운영기관(파트너 연계)	의회·교육 관련 기관(학교 참여)	정부·지자체·학교 협력(제도 운영)
대상	중등 학생	청소년(포럼 참여자)	학생(학교 단위)	청소년(학교·지역 단위)
참여 절차	쟁점 이해 → 토론·숙의 → 공개 토론·평가 → 결과 공유	의제 설정 → 토론·숙의 → 제안·프로젝트 설계 → 실행·공유(환류)	의제 학습 → 토론 → 모의 선거(결정) → 결과 발표·환류	의제 제안 → 심의·토론 → 투표(결정) → 예산 집행 → 환류
산출물·결과	토론 수행 결과, 평가·기록, 성과 공유	제언, 프로젝트·캠페인, 공유 결과물	투표 결과, 학교 단위 결과 공유	채택 사업 실행, 예산 집행 결과
반복 운영 주기	연례 대회 구조	행사·프로그램 단위 반복(정례 운영 여부 명시)	선거 주기 기반 반복	연례 운영 가능
근거 자료	규정·가이드·케이스 자료	공식 소개·프로그램 안내	공식 안내·등록 시스템	법령·운영 지침

단계별 운영 특성을 대조한 결과, 사례 비교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적 설계 조건을 교육적 기제로 도출하였다. 청소년의 참여를 시민성 함양으로 연계하는 교육적 기제는 ‘권한의 실질성’, ‘경험의 진정성’, ‘학습의 연계성’, ‘참여의 지속성’ 으로 각 기제의 판단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적 기제의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교육적 기제	
결정권, 집행권, 예산권, 투표·의결의 효력, 학생 제안 채택 및 집행의 의무화, 책임 주체와 역할 명시 등	의제의 설정, 심의, 결정,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도	권한의 실질성
공개 토론, 심사, 공론장 운영,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공표 및 보고, 산출물의 실제 반영 등	활동이 교실 내부를 넘어 공개 절차와 실제 청중을 갖고, 결과가 가시적 변화로 귀결되는 정도	경험의 진정성
읽기·쓰기·토론 등 교과 연계, 프로젝트 및 동아리 연계, 기관·지자체·정당·국제단체 등 파트너 구조, 자료 및 가이드 제공 등	교과·비교과 활동, 학교 거버넌스, 지역사회·국제 장(場)이 연속적 학습 경험으로 연결되는 수준	학습의 연계성
연례 운영 규정과 일정, 전담 조직 설치 및 예산 편성, 환류 절차, 참여 보장 장치 등	참여가 정례화·규정화되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반복 가능한 학습 루틴으로 정착한 정도	참여의 지속성

각국의 사례별로 교육적 기제의 작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미국의 NHSEB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구조화된 숙의와 상호 경험의 규범을 통한 도덕적 시민성의 함양을 중시한다. 논증적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와 표현 활동이 요구되기에 문해력 기반 시민성도

<표 4> 사례별 교육적 기제의 작동 수준

사례	권한의 실질성	경험의 진정성	학습의 연계성	참여의 지속성	특징
미국 NHSEB	낮음	중~높음	높음	중 (연례)	공개 심사·숙의 규범 은 강하나 제도 변화로 의 집행 권한은 제한
노르웨이 WEXFO	낮음~중 (제언 채널)	높음	높음	중 (포럼/프로 젝트 반복)	국제 포럼·실제 청중 기반, 기관·국제 네트 워크 연계 강화
덴마크 Skolevalg	낮음 (모의 절차)	높음	중~높음	높음	실제와 동일한 절차 체험·정례 운영, 정책 결정권은 학습 목적
포르투갈 SPB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제안-투표-집행이 실제 예산 배분으로 귀결, 환류 포함 제도화

강화한다. 도덕적 시민성과 문해력 기반 시민성이 결합된 숙의와 규범 중심의 설계는 학생들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상호 경청의 태도를 학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진정성’과 ‘학습의 연계성’이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동의 결과가 제도의 변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의 실질성’은 제한적이다.

노르웨이의 WEXFO Youth Voices와 Take Action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 담론을 토론의 내용과 형식으로 통합하여 문화적 시민성을 확장하고, 국제 포럼의 참여를 통해 국제적 시민성을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와 국제를 연계한 설계는 국제 무대에서의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진정성’이 높고, 학교와 기관 및 국제 단체와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학습 연계성’이 우수하다.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제언을

위한 채널은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덴마크의 Skolevalg는 정당 청년 조직과의 대면 토론, 실제와 동일한 절차의 모의 선거를 통해, 제도 참여를 경험된 절차로 내면화함으로써 실천적 시민성을 강화한다. 실제와 동일한 절차와 체험 중심의 설계는 정당 청년 조직과의 실제적 만남과 공개적 개표 등 ‘경험의 진정성’이 높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지속성’이 우수하고, 학습 목적의 모의 절차이기에 절차에 대한 학습 효과는 크지만 ‘권한의 실질성’은 낮다.

포르투갈의 SPB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부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하여 권한의 실질성과 책임성을 결합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시민성을 강화한다. 선정안이 실제 집행되고 물적 변화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권한의 실질성’과 ‘경험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과 활동과 학교 운영, 지자체가 연계되어 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참여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권한의 실질성’은 제도 설계의 성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포르투갈의 SPB는 재정 권한의 일부를 학생에게 위임하여 제안, 선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결정의 연쇄가 실제 자원 배분과 물적 변화로 귀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권한의 실질성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덴마크 Skolevalg는 투표, 개표 등 실제와 동일한 절차를 구현하여 권한을 체험된 절차로 내면화하도록 하였으나 공식적 정책의 결정권에 있어서는 학습 목적의 모의 절차에 머문다. 미국 NHSEB와 노르웨이 WEXFO는 학생의 사안 정의와 제언 채널이 제도 밖 담론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공식적인 의사 결정권 자체는 제한적이기에 권한의 실질성이 약하다. 이는 법 또는 행정적 위

임의 범위가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말해준다.

‘경험의 진정성’은 공적 공개성과 결과의 귀결성에 의해 강화된다. WEXFO는 국제 포럼과 문화 예술을 매개하여 공개 세션을 진행하고 실재하는 청중을 상시 확보함으로써 담론의 공적 책임성을 높인다. Skolevalg는 정당 청년 조직과의 대면 토론과 실명 개표 등 현실과 등치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긴장감으로 절차의 진정성을 극대화한다. SPB는 선정안의 집행과 사후 공개 보고가 제도화되어 진정성이 제도적 귀결로 이어진다. NHSEB 역시 공개 심사와 청중을 통해 일정 수준의 진정성을 담보하나, 결과가 제도 변화로 직결되지 않기에 진정성은 사실 담론적 검증에 가깝다.

‘학습의 연계성’은 각 사례가 결합하는 장(場)의 구성에 따라 유형화된다. NHSEB는 읽기, 토론, 쓰기를 통합하여 문해력 기반 시민성을 강화하고, 학교 동아리, 지역, 전국 네트워크를 수직적으로 연계한다. WEXFO는 학교, 기관, 국제 네트워크를 교차하여 문화적·국제적 시민성의 함양을 촉진한다. Skolevalg와 SPB는 학교 거버넌스와 정당 청년 조직, 지방 정부, 언론 등 제도와의 연계가 견고하고, 특히 SPB는 교과 프로젝트, 학교 운영, 지자체 집행이 한 흐름으로 묶인다. 이와 같은 학습의 연계성은 단일 프로그램의 확장보다는 다양한 장(場) 간의 상호 개방성 유지에 의해 확보된다.

‘참여의 지속성’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정례적 운영 여부가 중요하다. Skolevalg는 국가 주도하에 주기적 운영으로 순환적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고, SPB 또한 연례 공고, 투표, 집행, 환류의 주기가 규정화되어 학습-참여-책임의 루틴을 형성한다. NHSEB와 WEXFO 역시 연례 대회와 포럼을 중심으로 반복되지만 학교와 지역의 참여 의지

와 자원에 따라 지속성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참여의 지속성은 운영 주체와 제도적인 참여의 보장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좌우된다.

종합하면 권한의 실질성과 경험의 진정성이 결합될 때 시민적 효능감과 공적 책임성의 함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습의 연계성과 참여의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때 일회적 성취를 넘어 학교 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다. 각국의 사례는 숙의와 규범 중심(NHSEB), 문화와 국제 연계(WEXFO), 절차 체험의 제도화(Skolevalg), 권한 위임과 집행(SPB)이라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만 네 가지 기제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토론을 활용한 참여적 시민교육의 해외 사례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시민성 함양의 실질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시민교육을 통해 함양되기를 지향하는 이상적 시민성을 문해력 기반 시민성, 실천적 시민성, 문화적 시민성, 국제적 시민성, 도덕적 시민성으로 상정하고 이를 사례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분석 결과 해외 사례는 청소년에게 제도적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실제적 권한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의 실질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교육과정과 정책 차원에서 참여가 강조되어 왔음에도 참여가 형식화되거나 권한이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성찰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민주주의는 투표 중심의 절차를 공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시민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토론은 합리적 의사소통 역량과 집단적 판단의 질을 높이는 시민적 역량을 체득하도록 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해외 사례는 토론을 매개로 한 시민교육이 각국의 제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덴마크의 학교 모의 선거(Skolevalg)는 학생들이 정당의 청년 조직과 토론하고 실제와 유사한 선거 절차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추상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 절차로 체득하게 하였다. 노르웨이의 WEXFO는 청소년이 예술가와 정책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을 논의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며 실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윤리토론 대회(NHSEB)는 학생들이 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추론과 공공선 지향의 판단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의회, 참여 예산제, 청소년 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참여 활동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청소년은 여전히 ‘현재의 시민’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도 토의와 토론 활동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지식 중심의 학습 문화와 민감한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요구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도 제도적으로 참여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상징적 행사로 운영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는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이 학교와 학

교 밖의 경계를 허물고 복합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을 탐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국내 청소년 참여적 시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참여 제도는 청소년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의회, 참여 예산제, 학생 자치회가 단순히 형식적 자문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의 결과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과 지식 전달 중심의 학습에서 사회 현안과 연계된 숙의를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적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쟁점과 결합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학교에서 민감한 사회적 쟁점을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밖 참여 기구를 지역사회 및 국제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과 국제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 내 프로젝트 학습을 국제 교류, 모의 국제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자각하고 국제적 연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교육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시민적 목적의식(civic purpose)을 형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일회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경
로가 되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토론, 문화예술, 제도적 참여, 국제
적 연대를 통합하는 경험적 설계를 통해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권한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교과를 통해 형성된 앎을 사회
적 맥락과 연계하고, 참여의 범주를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로 확장하
며 시민적 목적의식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개 문헌과 프로그램 자료 등을 근거로 한 문헌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
리를 내고 인정받는 경험이 시민적 목적의식을 형성에 효과적임을
보이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교육적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후속될 때,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
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사회 구현에 보다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a).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2022b).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2022c).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5). **글로벌 교육동향 길** 2025년 2호(통권 제14호).

-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1975).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 고훈석(2013). 시민성 함양의 과정으로 본 사회참여 체험학습: 「주민참여」
단원 개발 실행 연구. **사회과수업연구** 1(1).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3-43.
- 구정화(2020). 공론화를 적용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방안-숙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며. **시민교육연구** 52(2). 한국사
회과교육학회. 1-26.
- 박선영(2022). 유럽의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비교.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3). 한국
청소년활동학회. 47-72.
- 박선운·황미영(2024).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의
선호: Kelly의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9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
구소 47-71.
- 성경희·박하나·유혜영(2024). 숙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초등 토의·토론 수업
방향 설정 원칙과 수업 모형 예시 연구. **사회과교육** 63(4). 한국사회과교
육연구학회. 257-284.
- 신호재(2019).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도덕과교육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52.
한국윤리교육학회. 1-44.
- 신호재(2022). 자존감 형성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도덕윤리과교육**
7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31-159.
- 이은미, 진성미(2014).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의: 지역사회
기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5-221.
- 추정훈(2002).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성. **사회과교육** 41(4). 한국사
회과교육연구학회. 5-22.
- Ballard, P. J., Cohen, A. K., Littenberg-Tobias, J., & Tobias, J.(2016). Action
civics for promoting civic development: Main effects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differences by project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8(3-4). 377-390.
- Bauml Michelle, Quinn, Brandy P., Blevins, Brooke, Magill, Kevin R. & LeCompte,
Karon(2023).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How civic education
activities promote thinking toward civic purpose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8(1). 110-142.

- Crocco, M. S.(2018). Deliberating public policy issues with adolescents. *Democracy & Education* 26(1). Article 3.
- Elstub, S., & McLaverty, P.(2014). *Deliberative Democracy: Issues and Cas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anson, J. S., & Howe, K. R.(2011). The potential for deliberative democratic civic education. *Democracy & Education* 19(2). Article 2.
- Hess, D. E., & McAvoy, P.(2015). *The Political Classroom: Evidence and Ethics in Democratic Education*. London: Routledge.
- Langton, K. P., & Jennings, M. K.(1968).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 high school civics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3). 852-867.
- OECD(2021). *Evaluation Guidelines for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2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reating Better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OECD/LEGAL/0474).
- OECD(2023). *Engaging Young Citizens: Civic Education Practices in the Classroom and Beyond*(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65). Paris: OECD Publishing.
- Parker, W., & Jarolimek, J.(1984). *Citizenship and the Critical Role of the Social Studies*. (NCSS Bulletin 72).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Parker, W. C.(1996). “Advanced” ideas about democracy: Toward a pluralist conception of citizen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98(1). 104-125.
- Parker, W. C.(2001). Educating democratic citizens: A broad view. *Theory into Practice* 40(1). 6-13.
- About WEXFO Youth(2025). <https://wexfo.no/about-wexfo-youth>(Accessed 2025.08.31.).
- DGE(2025). <https://www.dge.mec.pt/noticias/orcamento-participativo-das-escolas-ope>(Accessed 2025.08.31.).
- Diário da República.(2017). Despacho n.º 436-A/2017.

<https://diariodarepublica.pt/dr/detalhe/despacho/436-a-2017-105711800>(Accessed 2025.08.31.).

Folketinget(2025). <https://www.ft.dk/da/undervisning/skolevalg>(Accessed 2025.08.31.).

Folketinget(2025.04.02.)

<https://www.ft.dk/da/aktuelt/nyheder/2025/04/tilmeldingen-til-skolevalg-2026-er-aabnet>(Accessed 2025.08.31.).

NHSEB(2025). Rules and Documents. <https://nhseb.org>(Accessed 2025.08.31.).

NHSEB(2025). Rules Manual 2024–2025.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455d3d82007782c081fad44/t/671fc7167137ae37967b2456/1730135830563/Rules%2BManual%2B%282024-2025%29.pdf>(Accessed 2025.08.31.).

National Case Set 2024–2025.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455d3d82007782c081fad44/t/67c5b343b6483f5593fb6f9a/1741009731920/National%2BCase%2BSet%2B%282024-2025%29%2BSECURED2.pdf>(Accessed 2025.08.31.).

OPE Escolas(2025). <https://opescolas.pt>(Accessed 2025.08.31.).

Om Skolevalg(2025).

<https://tilmelding.skolevalg.dk/om-skolevalg/om-skolevalg>(Accessed 2025.08.31.).

Skolevalg(2025). <https://tilmelding.skolevalg.dk>(Accessed 2025.08.31.).

UNC Parr Center(NCHSEB)(2025). <https://parrcenter.unc.edu/nchseb>(Accessed 2025.08.31.).

WEXFO(2025). WEXFO Take Action.

<https://wexfo.no/wexfo-take-action>(Accessed 2025.08.31.).

Abstract

**Deliberation-Based Action Civic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Norway, Denmark, and Portugal**

Oh Lisa

(Field Researcher, Seoul Education Policy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cases of deliberation-oriented, debate-centered participatory civic education to identify design principles and pedagogical directions for Korean adolescents' civic educa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the limits of representati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tokenistic youth participation call for approaches that position youth as active participants in democratic life. Drawing on literature on citizenship, participatory civic educ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four programs: the National High School Ethics Bowl (NHSEB) in the United States, WEXFO Youth Voices/Take Action in Norway, Skolevalg in Denmark, and the School Participatory Budget (SPB) in Portugal. The findings show that debate and deliberation can function as complementary pedagogical approaches for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hip. Across cases, four mechanisms were consistently identified—substantive authority, authenticity of experience, curricular-co-curricular integration, and sustainability of participation—through which adolescents

developed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issues, civic self-efficacy, and communal responsibility. The study suggests that civic education in Korea should institutionalize debate-based participatory designs by granting students real authority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connections between curricular and co-curricular learning and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Key words : Debate Education, Youth Participation, Citizenship, Deliberative Democracy, Action Civics

투고신청일: 2025. 10. 28.

심사수정일: 2025. 12. 15.

게재확정일: 2025. 12. 19.